



소개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캡슐 컬렉션 시리즈

주요 특징:

- **새로운 지평선:** 발레드주에서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의 몽환적인 세계
- **자연, 새로운 재해석:**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한한 영감을 주는 살아 있는 예술
- **메티에 라르™:** 공통적인 테마를 표현하는 시그니처 장식 - 금박 파요나쥬, 에나멜링, 켄세팅
- **첫 번째 캡슐:** 하와이와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아 각각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3 가지 새로운 메티에 라르™ 리베르소 원 모델

예거 르쿨트르는 메티에 라르™ 타임피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 시리즈,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를 출시합니다.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청정 지역부터 아름다운 정원의 예술성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는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기념합니다. 캡슐은 다양한 컬렉션에서 선별되어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정교한 기술을 통해 경이로운 자연의 풍경을 표현합니다.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의 첫 번째 캡슐은 하와이와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리베르소 원 시리즈의 세 가지 새로운 에디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K(750/1000)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새로운 시계는 파인 워치메이킹 코드에 에나멜, 파요나쥬, 켄세팅, 래커 공정과 같은 예술적인 수공예를 더한 작품으로, 각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의 정신

고요한 발레드주에 자리한 예거 르쿨트르는 언제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울창한 숲과 잘 가꾸어진 정원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워치메이커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고유한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는 아름다운 자연에 깃든 놀라운 힘을 기념합니다. 세계 각지의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서 한 송이 꽃의 섬세함까지, 그리고 야생의 불규칙성에서 정교하게 가꿔진 정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자연은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자아냅니다. 오랜 세월 예술가와 철학자, 시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는 인하우스 메티에 라르™ 장인의 손길을 빌어 유서 깊은 예술적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해 나갑니다.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선보이는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 시리즈의 첫 번째 리미티드 에디션 캡슐은 '자연이 빚어낸 정원'으로 알려진 하와이 마우이의 풍요로운 열대 지역과 일본 홋카이도의 섬세한 식물을 기념하는 리베르소 원 컬렉션의 세 가지 새로운 메티에 라르™ 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열대의 풍경이 펼쳐지는 하와이

하와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감을 줍니다. 화산의 힘으로 바다에서 솟아오른 여러 섬들에는 용암 지대와 울창한 열대우림이 이어지고, 오래전 만들어진 절벽 사이로 폭포가 쏟아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대지는 살아 숨 쉬는 듯 끊임없이 변화하며, 정적인 존재가 아닌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연의 격렬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디자이너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초월한 장소를 두 가지 메티에 라르™ 작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리베르소 원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의 뒷면에는 푸른 히비스커스 꽃의 꿀을 먹고 있는 벌새의 모습이 몽환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미지는 두 개의 층에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배경에는 물결 패턴이 새겨져 있으며, 개별 부품 위에 여러 겹의 선명한 블루 래커를 입혀 시각적인 깊이를 더했습니다. 상단은 케이스 메탈에 직접 홈을 만들고 그랑 퓨 샹르베 에나멜 기법으로 새와 꽃을 연출한 후 최대



800°C 에서 가열 처리합니다. 에나멜 장인은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합니다. 새는 9 가지 금속 산화물 안료를 사용한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그리고 앞사귀는 불투명 에나멜과 반투명 에나멜을 여러 번 덧발라 제작합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는 10 가지 서로 다른 에나멜 컬러를 조합한 결과물입니다. 히비스커스 꽃의 암술은 24K 금박(999/1000) 파요네 에나멜 기법으로 생생히 재현합니다. 두 영역을 완성한 후에는 모자이크처럼 완벽한 조율을 거쳐 온전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는 335 개의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로 찬란히 빛나며, 블루 래커와 동일한 색채를 띠는 유광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주얼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384 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750/1,000) 브레이슬릿 옵션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열대 풍경을 기념하는 두 번째 작품, 리베르소 원 '히비스커스 로사'의 핑크 골드 케이스는 하와이를 상징하는 선명한 붉은 히비스커스 꽃 위에 내려앉은 별새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정교한 에나멜 작업에서 탄생한 새와 꽃, 풍성한 열대 식물은 최대 800°C 에서 가열하는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기법으로 제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하는 선명한 레드, 블루, 그린 컬러가 섬세하게 그라데이션을 이루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입체감을 연출합니다. 히비스커스 꽃의 암술은 24K 금박(999/1,000) 파요네 에나멜 기법으로 생생히 재현합니다. 레드 에나멜은 특히 구현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쉽게 갈변하는 금속 산화물의 특성상, 에나멜 장인은 각기 다른 온도에서 여러 차례 가열하는 과정을 숙달해야 합니다. 선명한 컬러를 얻기 위해서 에나멜을 9 겹 이상 덧발라야 합니다. 에나멜 주변을 장식하는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는 눈부신 빛과 광채를 펼쳐내며 디자인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스노 세팅 기법은 9 가지 사이즈로 선별한 다이아몬드 489 개를 메탈에 직접 세팅하는 방식으로, 모든 다이아몬드는 초소형 비즈에 고정되어 무작위로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탁월한 기술력은 곡면 장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려하게 이어진 모티프의 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장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시계를 앞면으로 착용했을 때 다이얼 양면에 섬세하게 새겨진 모티프는 타임피스를 돌려 모티프 전체를 감상하고 싶은 열망을 이끌어냅니다. 타임피스의 케이스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130 시간이 넘는 메티에 라르™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18K 핑크 골드(750/1,000) 브레이슬릿에는 384 개의 다이아몬드가 추가로 세팅되어 손목 위 찬란한 광채가 흐르듯 빛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60 시간의 잼스톤 세팅 작업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하이 주얼리 스타일의 브레이슬릿과 더불어 유광 레드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섬세한 아름다움

봄이 되면 일본은 온통 핑크빛 벚꽃으로 뒤덮이고, 일정 기간동안 황홀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예로부터 예술과 문학에 영감을 준 벚꽃은 봄의 시작과 생명의 재탄생을 알리는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빠르게 피었다 지는 벚꽃처럼, 모든 끝은 곧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인간 존재에 비유합니다. 광활한 풍경과 풍부한 생태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전통 문화를 간직한 홋카이도의 자연은 영감의 원천입니다. 리베르소 원 '사쿠라'는 바로 이곳의 아름답고 우아한 자연을 예찬합니다.

리베르소 원 '사쿠라'의 뒷면에는 벚나무 가지가 드리운 호숫가에 잠시 머무른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맑게 빛나는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케이스 위 분홍빛 벚꽃, 전경의 푸른 갈대, 두루미 머리, 다리, 날개 깃털을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기법으로 완성하고, 두루미의 몸과 위쪽 날개 깃털에는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습니다. 정교한 표현이 가능한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으로 재현한 두루미는 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살리기 위해 직접 붓을 제작하며, 특히 목과 숨깃털은 단 한 올의 붓으로 채색합니다. 메종의 켄세팅 장인은 처음으로 컬러 켄스톤을 사용한 스노 세팅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컬러의 블루 사파이어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호수 표면에 내려앉은 눈부신 햇살을 떠올리게 합니다. 259 개의 다이아몬드와 430 개의 사파이어를 세팅하는 켄스톤 세팅 작업은 130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계는 케이스를 장식한 블루-그린 컬러와 조화를 이루는 유광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선보입니다.

탁월한 예술적 장인 정신

새로운 리베르소 원 디자인은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에나멜 장인과 켄세팅 장인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에 이르는 세심하게 조율한 프로세스를 거치며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매뉴팩처 내 다양한 공예 기술을 한데 모은 전용 아틀리에가 있었기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의 꽃과 새 장식은 18K 골드(750/1,000) 바탕에 다양한 형태의 홈을 파내고, 이미지의 윤곽을 이루는 메탈의 미세한 홈만 남기는 그랑 퓨 상르베 에나멜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이후 그 홈을 금속 산화물 또는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에나멜로 한 번에 한 겹씩 얇게 채우고 최대 800°C 에서 가열하는 공정을 여러 차례 거쳐 에나멜을 단단하게 결합하며 색을 구현합니다. 그랑 퓨 에나멜의 신비로움은 바로 이 고온 가열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컬러는 예측이 어렵기에, 히비스커스 로사 플라워의 선명한 레드 컬러와 같은 특정 컬러는 특히 표현하기 까다롭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오랜 수련을 거쳐서야 비로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히비스커스 모델에는 파요네 에나멜 기법으로 제작한 꽃의 암술이 있습니다. 24K 금박(999/1,000)을 정확히 디자인한 길이에 맞춰 자르고 골드 베이스에 올려놓은 뒤, 그 위를 반투명 에나멜로 여러 번 덮는 고도의 전문 기술입니다. 켄세팅 장인은 에나멜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로사’와 ‘사쿠라’ 모델의 디자인에는 진귀한 스톤에 스노 세팅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켄세톤들이 무작위로 세팅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켄세팅 장인은 메탈 베이스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눈부신 빛과 광채의 흐름을 연출하기 위해 크기와 위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 개의 타임피스 모두에서 케이스 측면의 곡선을 따라 뒷면부터 베젤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다이아몬드 세팅은 켄세팅 장인의 숙련된 솜씨를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파인 위치메이킹의 원칙을 적용한 시그니처 리베르소 원 다이얼

리베르소 원 다이얼의 절제된 품격은 선명한 컬러를 띤 정교한 케이스백 장식과 아름답게 대비를 이룹니다. 다이얼의 네 모서리는 브래킷으로 장식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마더오브펄 배경 위 시그니처 리베르소 원 플로럴 폰트로 블랙 컬러의 숫자를 전사 프린트했습니다. 와인딩 크라운에는 다이아몬드가 리버스 세팅되어 컬렉션의 디자인 코드를 따릅니다. 시계는 아름다운 장식에 걸맞은 인하우스 칼리버 846 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5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는 93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사각형 리베르소 원 케이스에 맞게 디자인되었습니다.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의 첫 번째 캡슐인 세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원 타임피스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을 기념하는 한편, 경이로운 자연을 미니어처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그랑 메종의 탁월한 워치메이커와 디자이너, 장인들의 헌신을 기념합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원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리베르소 원 '히비스커스 로사'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0mm x 20mm x 9.09mm 두께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50 시간

앞면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그랑 퓨 샹르베 에나멜, 파요나쥬, 다이아몬드, 래커, 인그레이빙

'히비스커스 로사': 그랑 퓨 샹르베 에나멜, 파요나쥬, 다이아몬드

방수: 30m

진귀한 스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335 개의 다이아몬드(~ 총 2.38 캐럿)

'히비스커스 로사': 645 개의 다이아몬드(~ 총 2.37 캐럿)

스트랩: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레드 엘리게이터 가죽, 18K 핑크 골드(750/1,000) 더블 폴딩 클래스프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18K 핑크 골드(750/1,000), 일체형 클래스프, 384 개의

다이아몬드(~ 총 5.7 캐럿)

제품 번호: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Q3292424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Q3292324 풀 세팅 핑크 골드

히비스커스 로사 Q3292325 풀 세팅 핑크 골드. Q3292425 레드 엘리게이터 가죽

리미티드 에디션: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20 피스, '히비스커스 로사' 20 피스

리베르소 원 '사쿠라'

케이스: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크기: 40mm x 20mm x 9.09mm 두께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50 시간

앞면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그랑 퓨 샹르베 에나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귀한 스톤: 259 개의 다이아몬드(~ 총 1.43 캐럿)

430 개의 사파이어(~ 총 1.25 캐럿)

방수: 30m

스트랩: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더블 폴딩 클래스프

제품 번호: Q3293426

리미티드 에디션: 20 피스



벨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벨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지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